

나주 금천중, 언택트 시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

나주금천중(교장 문광일)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교육부의 1/3등교 방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2/3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급 단위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교는 그동안 만약에 모를 전교생 원격수업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 조성, 교사연수, 학생 태블릿pc 대여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학습효과와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1학기 때 활용했던 콘텐츠 중심의 수업과 피드백을 했던 기존의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전교사가 구글 행아웃 미트를 통해 교실수업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원격수업을 하는 학년도 등교수업을 하는

2/3 학생들, 가정서 학급 단위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진행
교실 환경 조성·교사연수·학생 태블릿pc 대여 등 준비 갖춰
온라인 수업 학습효과 문제점 슬기롭게 극복·수업의 질 높여

학년과 똑같이 일과가 진행되는데 담임 선생님은 화상 학급조회를 통해 학생들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 종소리 들으며 9시 정각에 1교시를 시작하여(40분 수업, 5분 휴식) 6교시 수업 후, 종례까지 참여하고 일과를 마친다.

3학년 김OO선생님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니까 학습효과

가 높아요.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리액션도 즐겁고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1학년 이OO학생은 "실제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발표를 못했던 친구들도 채팅창에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라며 원격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광일 교장은 "학생이 없는 빈 교실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니까 콘텐츠 제공형 수



업보다는 수업효과가 훨씬 높은 것 같다. 앞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교사들이 역할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격려했다. 기동취재본부

목포공고 "아자 아자 이제는 우리 힘으로 취업해 보자"

취업 역량 강화·양질 취업처 발굴 위해 워크넷 검색대회 개최



목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상호)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학생 본인의 취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워크넷 검색대회를 개최하였다.

워크넷 검색대회는 혁신지원사업 자율동아리의 일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심사(업체 조사 및 조사 카드 작성)와 2차 심사(조사내용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각 과별로 금

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 조사해 보는 소중한 체험의 장(場)이 되었다.

이 대회에 참가한 3학년 토목과 문장혁 학생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연금 보장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워크넷 산업체 조사를 하면서 전남도청 공무원이 되면 전남 도민

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전남도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며 공무원의 꿈을 현실화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으며 3학년 건축과 김민승 학생은 "인테리어와 목공, 실내 디자인 등 자신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다가 '더 잡'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알게 되고 이 회사에 취직만 된다면 실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면서 이 회사가 더욱 크고 모두가 알아보는 회사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에서는 워크넷 검색대회에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취업처 발굴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신이 원하는 업체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 중 대상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목포공고는 2020학년도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학교 수업환경 개선 및 취업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취업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장 및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취업률이 점 점 높아지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슬기로운 사춘기 생활' 개최

사춘기 전문가 '장희운' 작가 초청...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광양용강도서관은 오는 19일 사춘기 자녀교육 전문가 장희운 작가를 초청해 비대면 온라인 가족 친화 특강 '슬기로운 사춘기 생활'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자가 요청했던 주제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자와 강사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연에서는 방문을 달는 자녀와 대화법, 스마트폰과 이별하는 법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춘기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실제 작가가 교육 현장에서 겪은 사례

를 통해 흔들리는 사춘기 아이들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비법을 전할 예정이다.

장희운 작가는 중학교 국어교사이자 10여년간 대한민국 청소년을 지도해온 '사춘기 테라피스트'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지침서 '사춘기 부모수업' 저자이다.

이번 특강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wangyang.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강도서관(☎061-797-3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 공업고교, 공동실습소 일반 직업고까지 이용 확대

김나운 광주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광주지역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계열 학생만 이용하던 공동실습소를 직업계 고교, 중학생, 교원까지 직무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운 의원(북구 6)이 대표발의한 공업계 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는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에 한정됐던 공동실습소 운영 방식을 직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원까지 확대했다.

또 공동실습소 관리 주체를 기존 공업계고등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변경했다.

특히 첨단 기자재 조작실습 훈련만을 담당

했던 공동실습소를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이나 교원 직무역량 강화 연수로 기능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유치원 '현장맞춤형 직무 연수' 실시

전남유아교육진흥원, 해남 관내 5년미만 저경력 교사 8명 대상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은 해남 관내 5년 미만의 저경력 유치원교사 8명을 대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현장맞춤형 연수를 4일 해남교육지원청 연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총 5회 과정 중 3회차 실시하는 연수로 '기록화를 통한 과정중심평가'를 주제로 수석교사와 함께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직접 기록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이었다.

연수에 참가한 김OO교사(해남황산초병설유)는 "초임 교사로서 모든 게 낯설고 힘든데 현장맞춤형 직무연수는 여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배울 수 있어



서 좋았다. 유아의 놀이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들여다 봄'으로써 놀이 속 의미를 발견하고 배움으로 이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 기자

